

고등학생의 자기 평가 소재 하위요인 군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동귀** · 이수란**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자기 평가 소재 척도(Locus of Evaluation Inventory: LEI; Bucur & Lee, 2006)를 청소년집단에서 타당화 하고, 자기 평가 소재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16문항, 4요인 구조가 제안되었으며, 특히,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요인(긍정적 평가에 의존하기)이 나타났다. 또한 군집분석 및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청소년판 LEI의 하위요인 점수에 따라 3개의 군집(내적 평가소재 집단, 내-외 평가소재 집단, 외적 평가소재 집단)이 나타났으며, 각 집단은 자존감, 삶의 만족도 및 다양한 정신건강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집단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자기 평가 소재, 자기 평가 소재 척도, 정신건강, 또래집단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KRF-2007-신진교수지원(인문사회분야)-H00024.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I. 서 론

1. 자기개념과 자기 평가 소재

개인이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자기개념(self-concept)’은 그 사람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Campbell, 1990; Campbell & Lavalley, 1993; Campbell, Trapnell, Heine, Katz, Lavalley, & Lehman, 1996; Rosenberg, 1965). 특히, 개인이 자기개념을 형성하거나 스스로를 평가할 때, 타인의 의견과 평가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Goffman, 1959; James, 1980). 자기개념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각 개인은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근거하여 자기 개념을 형성, 유지, 평가하게 된다(Cooley, 1902; Mead, 1934; Baumeister, 1982; Nisser, 1993; Crocker & Wolfe, 2001).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속하고자하는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Baumeister & Leary, 1995; MacDonald & Leary, 2005). 그러나 최근 자기 가치감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자신을 평가할 때 타인을 많이 의식할수록 자존감 낮아짐의 변화가 심해지고, 높은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할 뿐 아니라, 신체 질병과도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kan, 1966; Diehl, Owen, & Youngblade, 2004). 반면, 스스로의 내적 기준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ruger, 1999).

Carl Rogers(1951)는 자존감 향상과 심리적 건강의 증진을 위해 지나치게 타인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외부의 피드백과 내부의 지각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 소재(Locus of Evaluation: LOE)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그는 LOE를 ‘개인의 가치나 규범이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근거하거나 혹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정도’(p. 156)라고 정의하였다. Rogers를 비롯한 인본주의 심리학자들(Rogers, 1959 Raskin & Rogers, 2000)은 LOE를 자존감의 향상과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이들에 의하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반응이나 피드백과 자기자신의 내적인 지각 모두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데, 자신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외적인 평가 근거와 내적인 평가 근거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Rogers(1951)는 개인의 LOE가 내부(internal)에 있는 경우 자기 자신이 가치평가 과정의 중심이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타인의 피드백을 균형 있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반해, LOE가 외부(external)에 있는 경우 타인의 평가나 외부 사건(예, 학업성적)이 자기에 대한 가치 평가의 유일한 근거/소재가 되며 이에 따라서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좌우된다.

실제로 LOE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LOE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Bucur와 Lee(2006)¹⁾는 Rogers의 이론에 근거하여 LOE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자기 평가 소재 척도(Locus of Evaluation Inventory: LEI)를 개발하였고, LOE가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단일차원이 아니라 여러 하위요인(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 낮은 자존감, 공격적인 자의식, 행동적 의존성)을 가지는 개념임을 밝혔다. 또한 이 도구를 사용하여 LOE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외적인 평가소재를 가지고 있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신경증과 꾸물거림이 높게 나타나 LOE가 개인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Rogers(1951, 1959)의 주장이 지지되었다. 한편, 국내 연구(Lee, Lee, Kim & Choi, 2007)를 통해서 LOE가 다양한 하위요인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변임임이 밝혀졌으며, 외적 평가소재를 가질수록 자존감이 낮고 사회불안 및 시험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청소년의 특성과 자기 평가 소재(LOE)

LOE는 일반 성인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개념이다.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으로써,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자기만큼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을 보이며, 상상적 관중(imaginary audience)을 만들어내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1) 이 논문은 본 연구의 제 1저자의 지도하에 David Bucur가 쓴 박사논문 결과를 미국심리학회 연차대회(2006년)에서 발표한 것이다.

행동한다(Elkind & Bowen, 1979).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또래집단에 의해 인정받고 수용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Erickson, 1950, 1968). 즉,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의견과 평가가 중요한 정보가 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또래집단의 인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성숙과 정서적 안정 뿐 만 아니라, 부모나 또래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정옥분, 2004).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 부모나 주위 어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 한 후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또래들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성과 개별성을 확립하는 것이 자아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계현 외, 2000). 이러한 발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외적 LOE를 가진 청소년들은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청소년의 LOE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대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역시 LOE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라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감수하면서 감행하는 성형수술(2007. 02. 21, 한국일보), 성적을 비판한 자살(2007. 12. 10, 한국일보),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의식(2007. 12. 06, 국민일보) 등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겉모습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예민해지기 쉽다.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부적 감정과 좌절을 경험하고 심한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 문제와 부적응이 지나친 외적 LOE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LOE가 개인의 자기 평가 소재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자아 발달과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LOE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 평가 소재 척도(LEI)를 타당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LOE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밝힌 바 있다(Lee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나타난 LEI의 4개 하위요인(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 낮은 자존감, 공격적인 자의식, 행동적 의존성)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실제의 자신보다 더 우월한 자아상을 겉으로 표현하는 한국인 특유의 방어기제인 '허세'를 반영한 새로운 요인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각 발달단계 혹은 연령집단에 따라서 발달과업이 다르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Erickson, 1950)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 예를 들어 고등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생 집단에서는 자신을 과장하거나 체면을 차리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기술로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고등학생 집단에게는 또래집단의 수용과 인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적인 LEI는 낮은 자존감, 불안, 신경증 등 부적응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으나(Bucur & Lee, 2006; Lee et al., 2007), 이러한 결과가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LEI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한국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자기 평가 소재에서 어떤 하위요인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LEI 하위요인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LEI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탐색할 때, LEI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다른 의미와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인별 점수에 따라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타인의 인정 및 수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요인의 점수 차이에 따라 하위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다. 각 요인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각 집단들이 자존감,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지표 상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다변량분석(MANOVA)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LOE 개념에 기초해서 다양한 청소년 하위집단과 이들의 정신건강을 알아보는 것은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과 상담, 개입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LEI를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용화 하고 자기 평가 소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과 동시에 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96명(남자 124명, 63.3%)을 대상으로 설문
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15세에서 18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16.33(SD=.71)
세였다. 참가자들의 학년은 대부분 1학년(74명, 37.8%)과 2학년(118명, 60.2%)에 분포
되어 있었다.

2. 측정 도구

1) 자기 평가 소재 측정 도구

Bucur와 Lee(2006)가 개인의 자기 평가의 소재(Locus of Evaluation: LOE)를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자기 평가 소재 척도(Locus of Evaluation Inventory: LEI)를 본 연구자
들이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한 것(Korean-Locus of Evaluation Inventory: K-LEI)을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6점 리커트 형식(1=매우 동의하지 않음, 6=매우 동의함)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외적 LOE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LEI의 총점은 자
존감, 신경증, 꼼꼼함, 꾸물거림 등 관련 있는 변인들과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
으며 (자존감: $r=-.59$; 신경증: $r=.63$; 꼼꼼함: $r=-.23$; 꾸물거림: $r=.30$, all $ps < .05$). 2주
간격으로 실시된 LEI 25문항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1$ 로 나타났다(Bucur & Lee,
2006). 본 연구에서 K-LEI 25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79였다.

2) 자존감 측정 도구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Inventory: RSE)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자존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으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
한다" 등의 질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4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확

실히 그렇다)상에 표시하는 것으로, 긍정문항 5개와 부정문항 5개인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문항은 역채점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고양된 자존감 수준을 나타낸다. 내적 신뢰도 계수는 .88로 보고되었으며(Fleming & Courtney, 1984),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로 보고되었다(Silber & Tippet, 1965).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측정 도구

삶에 대한 만족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여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였다. 이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안산능(2006)에 의해서 번안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1로 나타났다.

4) 정신 건강 측정 도구

참가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이증상검사(The Brief Symptom Inventory; BSI, Derogatis & Melisaratos, 1983)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간이정신진단 검사지(Symptom Checklist 90-Revision; SCL 90-R)의 단축형으로, SCL 90-R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정신증 $r=.92$, 적대감 $r=.99$; Derogatis, 1977). BSI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검사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정도에 따라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5=자주 이렇게 느낀다)로 응답하게 된다. 이 척도를 통해 9개의 증상(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및 심리적 문제의 심각도(Global Severity Index: GSI) 수준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마쳤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7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먼저 고등학생 집단에서 어떤 K-LEI 하위요인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프로맥스 회전(promax rotation)²⁾을 이용한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유값(eigen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요인 부하량 및 설명량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보완하고, 요인의 수를 엄격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함께 실시하였다(Zwick & Velicer, 1982). 평행분석은 연구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고유값(eigenvalue)과 무선적으로 생성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고유값을 선형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O'Connor, 2000), 고유값이 1보다 큰 요인을 선택하거나(Kaiser, 1960), 스크리 도표로만 요인의 수를 결정할 때 요인의 수를 과대 추정 하는 오류를 통제할 수 있어 요인의 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Zwick & Velicer, 1986 Velicer, Eaton, & Fava, 2000). 요인의 문항을 선정할 때는 먼저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s)이 .33³⁾ 이하인 문항을 삭제한 후, Pett, Lackey와 Sullivan(2003)이 제안한 기준에 근거하여 교차 부하량(cross-loadings)이 .25 이상인 문항도 제외시켰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K-LEI의 하위요인 점수에 따라 몇 개의 자연발생적인 집단이 형성되며, 각 집단이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군집분석 및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대상을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한 군집 내에 유사한 대상들이 속하도록 분류”하는 방법으로(Hair & Black, 2000, p. 147), 본 연구에서는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1단계에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2단계에서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위계적 군집방법만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례로부터 이탈된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군집분석

2) 프로맥스 방법(사각회전의 일종)을 이용한 것은 Bucur와 Lee(2006) 선행연구에서 요인들 간 상당한 상관이 나타났고 프로맥스 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기 위함이었다.

3) .33을 요인선정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요인부하량이 .33을 넘을 경우 10%(.33 × .33 = 10.89%)의 변량을 설명하여 요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이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독립변인은 각 군집이고, 종속 변인은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 BSI의 하위요인(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및 정신증, GSI)이었다.

III. 연구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LEI 25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 (Kaiser-Meyer-Olkin Measure)가 .76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는 $p < .001$ 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리 도표와 해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4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행분석 결과 역시 4요인 구조를 지지하였다(표 1).

<표 1> 평행 분석 결과

요 인	실제 고유값	평균 고유값	95 th 백분위 고유값
1	4.995	1.715	1.807
2	2.368	1.607	1.689
3	1.836	1.517	1.588
4	1.622	1.440	1.504
5	1.257	1.371	1.434
6	1.191	1.301	1.355
7	1.099	1.244	1.295

주. 50회의 실제, 평균, 95th백분위 고유값(eigenvalue) 중 7번째까지의 고유값을 제시하였음.

4요인 구조를 확정하고 문항선정 기준(요인 부하량 .33 이상, 교차 부하량 .25 이하)에 따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들을 삭제하여 전체 변량의 38.67%를 설명하는 4요인, 16문항의 고등학생용 K-LEI가 확정되었다. 16문항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α)는 .76으로 나타나 문항간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미국에서의 4개 요인(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 낮은 자존감, 공적인 자의식, 행동적 의존성) 중에서 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6문항, 전체 변량의 21.13% 설명), 낮은 자존감(4문항, 전체 변량의 8.49% 설명), 공적인 자의식(4문항, 전체 변량의 5.09% 설명) 등 3개 요인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두 문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요인이 나타났다. 새로운 요인에 포함된 문항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더 받아들이기 쉽다'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보다 나를 존중해 준다는 것을 알 때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 든다'로 두 문항은 공통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타인의 긍정적 평가에 의존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요인을 '긍정적 평가에 의존하기(2문항, 전체 변량의 4.0% 설명)'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요인 부하량 및 공통성, 요인점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K-LEI의 하위요인들 중 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 낮은 자존감, 공적인 자의식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와 공적 자의식: $r=.18$, $p<.05$ ~ 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와 낮은 자존감: $r=.28$, $p<.01$), 긍정적 평가에 의존하기는 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34$, $p<.01$). 각 요인별 문항의 요인 부하량 및 공통성, 요인점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자기 평가 소재 문항과 요인 부하량 및 공통성, 평균, 표준편차

16 문항 ($\alpha = .76$) 문 항	패턴 계수				h^2	M	SD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 1: 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 (6 문항 $\alpha = .81$)						4.21	.8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주 걱정한다.	.76	.09	.17	-.03	.71	4.02	1.34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75	.15	-.10	-.03	.60	4.67	1.08
종종 나의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쓴다.	.74	-.22	-.03	.01	.49	4.46	1.07
내가 괜찮아 보이는지 자주 사람들에게 묻는다.	.58	.02	.04	-.14	.31	3.32	1.33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다.	.56	.04	-.10	.25	.47	4.28	1.19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성취한 것을 말해주고 싶다.	.38	-.01	-.01	.21	.25	4.49	1.07

〈표 2〉 계속

16 문항 ($\alpha = .76$)	패턴 계수				h^2	M	SD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 2: 낮은 자존감							
(4 문항; $\alpha = .61$)						3.12	.81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20	.58	.09	.09	.35	3.00	1.10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지와 상관없이 나 자신에 대해 행복할 수 있다.	.07	.54	.04	.05	.36	3.20	1.21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16	.51	-.16	-.19	.30	3.12	1.19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화가 났을 때 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어렵다.	.02	.49	.08	.06	.30	3.18	1.23
요인 3: 공적인 자의식							
(4 문항; $\alpha = .56$)						3.70	.81
실수를 하면 쉽게 창피해진다.	.10	-.07	.65	.14	.50	4.19	1.20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내 모습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03	.12	.52	-.04	.33	3.41	1.24
어떤 일에 실패하면,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00	-.02	.43	-.15	.17	3.51	1.16
나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편안한 느낌이 든다.	-.12	.04	.42	-.07	.17	3.67	1.35
요인 4: 긍정적 평가에 의존하기							
(2 문항; $\alpha = .58$)						4.42	.87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더 받아들이기 쉽다.	-.06	.17	-.08	.72	.50	4.04	1.09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보다 나를 존중해 준다는 것을 알 때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 든다.	.10	-.17	-.05	.58	.39	4.80	1.00

주. N = 196. h^2 = 공통성(communality)지수. 요인 부하량은 프로맥스 회전을 사용한 주축요인추출의 패턴 행렬을 통해 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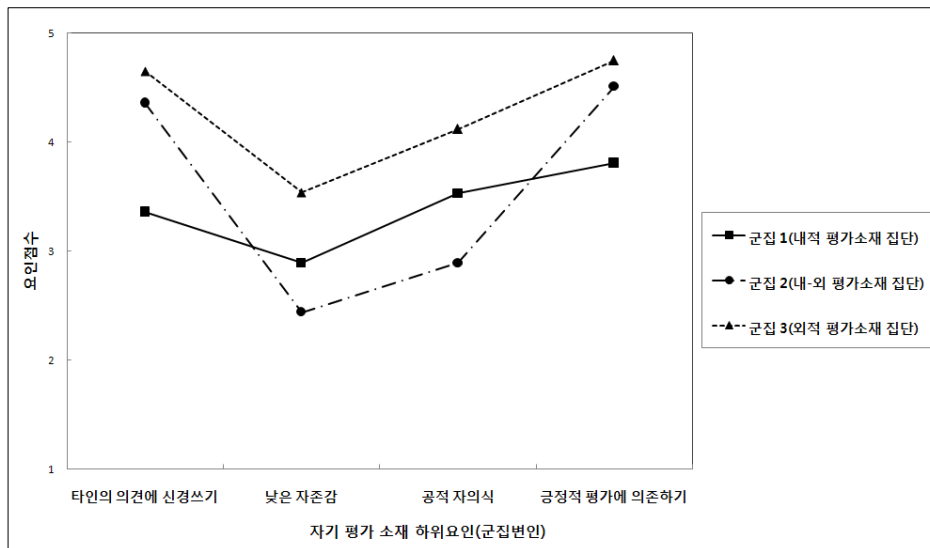
원래 K-LEI에서 삭제된 9문항은 다음과 같다 :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했으면 하는 것들을 따르는 편이다,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의존한다. 종종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실수를 하면 그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종종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곤 한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나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

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종종 내 입장을 고수하곤 한다.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내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언짢아진다.

2. 군집분석 결과

고등학생용 K-LEI의 하위요인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군집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Wards 방법을 사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폭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3개 군집이 차별적 특성을 가진 의미 있는 분류인 것으로 나타나 3개 군집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으로 투입하여 2단계 군집분석(K-means)을 실시한 결과, 군집 1은 63명(32.1%), 군집 2는 48명(24.5%), 군집 3은 85명(43.4%)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자기 평가 소재의 하위요인 점수에 따른 군집

주. 일반적으로 군집분석에서 표준화 점수를 사용하지만, 군집변인이 K-LEI의 하위척도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군집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점수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군집 1은 전반적으로 각 요인의 점수가 낮아 내적인 평가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LEI 총점을 분석한 결과 3개 군집 중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므로 '내적 평가소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낮은 자존감 및 공적인 자의식 점수가 가장 낮은 반면 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와 긍정적 평가에 의존하기 점수는 높은 특성을 보여 내적인 자기 평가 기준을 가짐과 동시에 타인의 의견 및 평가에도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군집은 내적 및 외적 평가소재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외 평가소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LEI의 총점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각 하위요인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외적 평가소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3개의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점수, BSI의 하위요인 점수(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및 GSI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Levene의 검정과 Box의 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Levene의 검정에서 모든 종속변인의 유의확률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오차 분산의 동일성 가정을 만족하였으나, Box의 동일성 검정결과 집단의 동질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F(182, 69141.28)=1.639$, $p<.05$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살펴보았다(Mertler & Vannatta, 2005). 다변량 분산분석 전체에 대한 유의성은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여[Pillai's 트레이스=.40, $F(26, 364)=3.52$, $p<.05$, 부분 $\eta^2=.20$] 각 군집들이 자존감 및 삶의 만족, 정신건강 지표들의 전반적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각각에 대한 변량분석(ANOVA) 결과에 의하면, 신체화를 제외한 모든 종속변인에서 .01 수준의 유의한 집단차이를 보였다(예: 자존감 $F(2, 193)=20.65$, $\eta^2=.18$], 삶의 만족도 $F(2, 193)=9.88$, $\eta^2=.09$], GSI $F(2, 193)=15.35$, $\eta^2=.14$], 나머지 종속변인에 대해서는 <표 3>참조). 이때, 종속변인 각각에 대해 개별 ANOVA를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일종 오류(영가설이 참인데 잘못 기각할 오류)의 증가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적인

준거($p < .05$)보다 엄격한 기준($p < .01$)을 적용하였다. 각 군집별 종속변인 점수와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4. 사후검정 결과

어떤 군집들 사이에 종속변인 평균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부등호로 표시하였다. 자존감은 군집 2(내·외 평가소재 집단)가 가장 높았고, 군집 1(내적 평가소재 집단), 군집 3(외적 평가소재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군집 2(내·외 평가소재 집단)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정신건강 지표들(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GSI)에서는 군집 3(외적 평가소재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군집 3(외적 평가소재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각 군집별 자존감, 삶의 만족도, BSI 하위요인 점수 및 집단비교 결과

	군집 1 내적 평가소재 집단 (n = 63)		군집 2 내·외 평가소재 집단 (n = 48)		군집 3 외적 평가소재 집단 (n = 85)		F(2,193)	사후검정
	M	SD	M	SD	M	SD		
자존감	27.68	4.92	30.77	4.07	25.13	5.26	20.65**	3 < 1 < 2
삶의만족도	17.18	6.00	19.94	4.27	15.47	5.87	9.88**	1, 3 < 2
신체화	.69	.70	.59	.78	.93	.75	3.84*	2 < 3
강박증	1.15	.67	.99	.74	1.67	.73	16.79**	1, 2 < 3
대인민감성	1.01	.86	1.03	.76	1.81	.92	19.92**	1, 2 < 3
우울	1.04	1.02	.83	.87	1.58	1.03	10.38**	1, 2 < 3
불안	.70	.70	.65	.81	1.19	.86	10.04**	1, 2 < 3
적대감	.95	.88	.86	.80	1.48	.99	9.85**	1, 2 < 3
공포불안	.62	.71	.36	.49	1.05	.84	15.04**	1, 2 < 3
편집증	.94	.80	.67	.74	1.40	.79	14.59**	1, 2 < 3
정신증	.86	.74	.76	.68	1.31	.80	10.50**	1, 2 < 3
GSI	.87	.68	.72	.63	1.33	.70	15.35**	1, 2 < 3

주. * $p < .05$, ** $p < .001$, GSI = 전반적인 심리문제의 심각도(Global Severity Index), 사후검정은 Tukey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 제시하였다($p < .05$).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K-LEI의 하위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LEI의 일반화가능성(generalizability), 즉 외적타당도를 높이는데(Heppener, Wampold, & Kivlighan, 2008) 기여하였으며, 자기 평가 소재(LOE)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1. 한국 청소년의 자기 평가소재 하위요인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청소년 집단에서 4개의 LEI 하위요인이 나타났다는 것은 LOE가 단순히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특성을 가지는 개념이라는 Bucur와 Lee(200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난 K-LEI 하위요인이 미국 및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의 요인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LOE가 문화와 연령집단에 따라 영향을 받는 민감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4개의 요인 중에서 '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 '낮은 자존감', '공적인 자의식' 등 세 개 요인은 미국 및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나타난 요인과 동일한 것이었는데, 이는 LEI의 하위요인 중에서 이들 세 요인이 각 문화와 연령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 신경을 쓰는 정도를 의미하고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거나, 타인으로 부터의 평가를 스스로의 평가보다 더 많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공적인 자의식'은 대중 속에 있을 때 개인의 행동과 감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었다.

한편, 한국 청소년 집단에서 새롭게 나타난 요인인 '긍정적 평가에 의존하기'는 또래집단과 같은 타인의 수용과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또래집단 및 타인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반면(Bukowski & Hoza, 1989), 가족이나 교사, 또래와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부적응 문제를 보일뿐 아니라 비행행동에 더욱 자주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이상균, 2005; 박영신 & 김의철, 2001)를 고려할 때, 이 요인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부적응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군집의 특성 및 평가소재와 정신건강의 관계

K-LEI의 하위요인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3개의 군집이 나타났다는 것은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K-LEI 하위요인 점수에 따라 크게 3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 고등학생들이 자기 평가 소재에서 다양한 개인차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군집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3개의 군집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K-LEI 하위요인 점수에 따른 집단구분이 개인의 정신건강 및 적응을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특히, 각 군집들이 보여준 특성은 LOE와 청소년 집단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던 군집 3(외적 평가 소재 집단)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이 가장 낮고, 모든 정신건강 지표에서 부정적인 특성을 보인 반면, 모든 하위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군집 1(내적 평가소재 집단)은 모든 종속변인들에서 군집 3(외적 평가소재 집단) 보다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외적 LOE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Rogers(1951)의 제안을 지지한다. 이 집단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가능성이 시사되므로 특히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들의 관심을 요한다. 이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경우 부정적인 자기인식이나 도식을 교정하고 성공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문제해결전략을 단계적으로 교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군집 2(내-외 평가소재 집단)는 '낮은 자존감'과 '공적인 자의식'에서는 다른 군집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와 '긍정적 평가에 의존

하기'에서는 군집 3(외적 평가소재 집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내적인 평가소재와 외적인 평가소재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집단은 군집 3(외적 평가소재 집단)에 비해 모든 정신건강 지표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요인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낸 군집 1(내적 평가소재 집단)보다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적인 평가소재를 가질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LOE 이론(Rogers, 1951)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2(내-외 평가소재 집단)가 '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와 '긍정적 평가에 의존하기'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외적 평가소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과 적응의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특성을 보인 것은 한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타인의 의견에 신경 쓰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것이 개인의 적응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문화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로 표현되는 서구 문화의 가치를 내면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개성, 독특함, 자율성 등에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Hallowell, 1955) 타인의 의견 및 인정에 민감한 것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동양문화에서는 타인과의 조화, 배려, 타인의 인정, 유사성의 공유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Ho, 1995; Tu, 1994)이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 및 인정에 민감한 것은 오히려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문화는 '우리성'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만큼 강한 집단주의적, 상호의존적 특성을 보이며(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 1999), 타인지향적인 관점이 매우 중시된다(조윤경, 2003; 박현수, 1990). 실제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유교적 전통에 근거한 한국의 문화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상진, 이장주, 1999;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1999). 즉, 군집 2(내-외 평가소재 집단)이 보여준 긍정적 특성은 이 집단이 이러한 한국 문화에 적응적인 집단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또래 집단의 수용과 인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청소년 집단에서 타인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증진 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군집 2(내-외 평가소재 집단)가 '낮은 자존감' 및 '공적 자의식'에서는 내적 평가소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이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타인의 의견에 신경을 쓰지만,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으로부터의 평가 보다는 스스로의 평가를 더 신뢰하며, 대중 속에 있을 때에도 개인의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타인의 의견에 신경을 쓰더라도 평가의 중심에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있는 것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3.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가 K-LEI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LOE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의 사용으로 인한 반응편파(response bias)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연구 변인들에 대해 참가자들의 실제 수준이 아닌 개인의 지각을 측정한 것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 비율(63%)은 2007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등학생 남학생 비율($53.07\% = 1,046,000 / 1,971,000$) 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고등학생 전체에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다. 그리고 K-LEI에 대한 요인분석에 사용된 표본 크기(196)는 일반적인 권장기준 (문항 당 10명;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 \times 25 = 250$ 명)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군집분석은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의 유형을 알아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표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표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국내의 다른 중·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군집분석 후 MANOVA를 실시할 때,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변인들(예, SES, 학업성적, 친구관계 등)을 통제하지 못한 점도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외적 LOE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LOE가 청소년의 비행행동, 학교생활 및 성취 등 청소년의 구체적인 행동 및 적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군집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거나, 개별 면접을 통해 보호감찰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이 LOE의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등 질적 연구를 통해 LOE와 부적응 문제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LOE 차이에 따른 개인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고(高)위험 집단을 사전에 확인하고,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고양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LOE를 활용할 수 있다. Rogers(1959)는 상담을 찾는 대다수의 내담자들이 외적 LOE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담의 중요한 목표 및 성과 중의 하나가 LOE의 방향을 외부에서 내부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학교 장면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자신의 장점과 자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자기 내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움으로써 건강한 자기 개념을 갖고 적응적인 삶을 누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7. 12. 06일자 기사: 밥 굶고, 자살 충동에 폭행까지...위기 처한 대한민국 청소년.
- 김계현·김동일·김봉환·김창대·김혜숙·남상인·조한익(200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김광일·김재환·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영신·김의철(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7권, pp. 63-89.
- 박현수(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신능(2006). 자기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 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 복지학, 제19권, pp.141-170.
-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 발달. 서울: 학지사.
- 조윤경(2003). 한국인의 나 의식-우리 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 관계문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pp. 91-109.
- 최상진·김지영·김기범(1999). 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표현행위 및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집, pp. 24-27.
- 최상진·윤호균·한덕웅·조궁호·이수원(1999).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서울: 지식산업사.
- 최상진·이장주(1999). 정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pp. 219-223.
- 한국일보 2007. 2. 21일자 기사: 성형공화국 - '마네킹 외모' 강요하는 사회.
- 한국일보 2007. 12. 10일자 기사: 수능성적 비판 쌍둥이 자매 투신자살.
- Bakan, D.(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Boston: Beacon Press.
- Baumeister, R. F.(1982). A self-presentational view of social phenomena. *Psychological Bulletin*, Vol. 91, pp. 3-26.
- Baumeister, R. F., & Leary, M. R.(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7, pp. 497-529.
- Bucur, D. R., & Lee, D.-G.(2006, August). *Locus of evaluation measurement: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Poster present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 Bukowski, W. M.,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 15~45). New York: Wiley.
- Campbell, J. D.(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pp. 538-549.
- Campbell, J. D., & Lavalley, L. F.(1993). Who am I? The role of self-concept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people with low self-esteem.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pp. 3-20). New York: Plenum.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y, L. F., & Lehman, D. R.(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141-156.
- Cooley, C. H.(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s.
- Crocker, J., & Wolfe, C. T.(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Vol. 108, pp. 593-623.
- Derogatis, L. R.(1977). *SCL-90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I*. Baltimore: Johns Hopkins.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1983). The Brief Symptom Inventory: An introductory report. *Psychological Medicine*, Vol. 13, pp. 595-605.
- Diehl, M., Own, S. K., & Youngblade, L. M.(2004). Agency and communion attributes in adults' spontaneous self-represen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8, pp. 1-1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pp. 71-75.
- Elkind, D. & Bowen, R.(1979). Imaginary audienc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5, pp. 38-44.
- Erikson, E.(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kson, E.(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Fleming, J. S., & Courtney, B. E.(1984). The dimensiona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6, pp. 404-421.
- Goffman, E.(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Anchor Books.
- Hair, J. F., & Black, W. C.(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pp. 147-205). Washington, DC: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llowell, A. I.(1955). *Culture and experie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eppner, P. P., Wampold, B. E., & Kivlighan, D. M. Jr.(2008). *Research design in counseling*(3rd.). Belmont, CA: Wadsworth.
- Ho, D. Y. F.(1995). Selfhood and identity in Confucianism, Taoism, Buddhism, and Hinduism: Contrasts with the West.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Vol. 25, pp. 115-139.
- James, W.(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Vol. 1).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aiser, H. F.(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20, pp. 141-151.
- Kruger, J.(1999). Lake Woebegone be gone! The “below-average effect” and the egocentric nature of comparative ability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pp. 221-232.
- Lee, S. R., Lee, D. G., Kim, M. J., & Choi, H. Y.(August 200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locus of evaluation inventory*. Poster presented for

-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MacDonald, G., & Leary, M. R.(2005). Why does social exclusion hur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physical pai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1, pp. 202-223.
-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rtler, C. A., & Vannatta, R. A.(2005).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Practic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3rd ed.). Glendale, CA: Pyrczak Publishing.
- Neisser, U.(1993). *The perceived self: Ecological and interpersonal sources of self-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 Connor, B. P.(2000). SPSS and SAS program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using parallel analysis and Velicer's MAP test.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ation, and Computers*, Vol. 32, pp. 396-402.
- Pett, M. A., Lackey, N. R., & Sullivan, J. J.(2003). *Making sense of factor analysis: The use of factor analysis for instrum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Raskin, N. J., & Rogers, C. R.(2000). Person-centered therapy. In R. J. Corsini & D. Wedding(Eds.), *Current psychotherapies*(6thed., pp. 133-167). Belmont, CA: Wadsworth.
- Rogers, C. R.(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MA: Houghton-Mifflin Co.
- Rogers, C. R.(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Vol 3, pp. 184-256). New York: McGraw-Hill Co., Inc.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lber, E., & Tippet, J. S.(1965). Self-esteem: Clinical assessment and measurement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16, pp. 1017-1071.
- Tu, W.(1994). Embodying the universe: A note on Confucian self-realization. In R.

- T. Ames, W. Dissanayeke & T. P. Kasulis(Eds.), *Self as person in Asian theory and practice*(pp. 177-186).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Velicer, W. F., Eaton, C. A., & Fava, J. L.(2000). Construct explication through factor or component analysis: A review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factors or components. In R. D. Goffin, & E. Helmes(Eds.), *Problems and solutions in human assessment*. Norwell, MA: Kluwer Academic.
- Zwick, W. R., & Velicer, W. F.(1982). Factors influencing four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17*, pp. 253-269.
- Zwick, W. R., & Velicer, W. F.(1986).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Vol. 3*, pp. 432-442.

ABSTRACT

Clusters of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ir Locus of Eval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Lee, Dong-Gwi* · Lee, Su-Ran*

This study validated the Locus of Evaluation Inventory (LEI; Bucur & Lee, 2006) i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furthe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us of evaluation (LOE) and degree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results of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yielded a 16-item Korea-LEI with four factors. Interestingly, a new factor (Dependence on Positive Feedback) emerged, which ma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dolescents. A cluster analysis and MANOVA results revealed the presence of three clusters (Internal LOE Group, Internal-External LOE Group, and External LOE Group), and each cluster differed significantly across the measures of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is study helps to understand high school students' LOE and presents a fuller picture of their psychological health.

Key Words : Locus of Evaluation, Locus of Evaluation Inventory, psychological adjustment, peer group

투고일 : 12월 15일, 심사일 : 2월 1일, 심사완료일 : 2월 20일

* Yonsei University

